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9. 22.(화)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2일(화)부터		
담당부서	의정담당관 의정팀	담당자	박경용 사무관(044-300-7211)
			차현주 주무관(044-300-7214)

전통시장부터 국회까지...

세종시의회, 추석 맞이 민생 · 정책 행보 이어가

- 한가위 맞아 지역상권 살피고 행정수도 완성 위한 정책 논의에도 힘 보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는 추석 명절을 앞둔 22일 전통시장과 국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토론회장을 동시에 오가며 ‘민생’과 ‘정책’이라는 두 분야를 아울러 의정 행보를 이어갔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조치원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면 대평시장을 차례로 찾아 전통시장 민심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에 나섰다. 매년 명절마다 이어져 온 연례행사이지만, 올해는 민생 현장 살피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 현장까지 아울러 심도 있게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의원들은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명절 성수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의원별 일정을 나누어 일부는 대평시장으로 이동해 장보기를 이어갔고, 일부 의원들은 국회로 발걸음을 옮겨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민생경제의 최전선인 전통시장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논의가 펼쳐지는 국회를 오가며, 지역의 오늘과 세종의 미래를 함께 살피고자 노력한 것이다.

안신일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경제의 현주소를 살피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시장 곳곳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 역시 세종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논의 과정을 두루 살피며 세종의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 현안과 민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